

제 1 교시

국어 영역

[고전시가]

(수능 완성 - 윤선도, 「오우가」 // 고1, 2013.03)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구름 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 소리 맑다 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종고도 그칠 뉘 없기는 물론인가 하노라.
<제2수>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 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아닐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제3수>

더우면 꽃 피고 추우면 잎 지거늘
솔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느냐.
구천(九泉)의 뿌리 곧은 줄을 글로* 하여 아노라.
<제4수>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렇게 사시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제5수>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밤중에 광명(光明)이 너만한 이 또 있느냐.
보고도 말 아니 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제6수>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

* 좋다 : '깨끗하다'의 옛말.
* 자로 : 자주.
* 하노매라 : 많구나.
* 글로 : 그것으로.
* 시기며 : 시켰으며.

35.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3음보를 중심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④ 어순의 도치를 통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⑤ 대조적인 소재로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36. 윗글을 읽고 난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맑고도 그치지 않는 물과 같이 순수함을 오래도록 잃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 ② 영원히 변함없는 바위와 같이 늘 한결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 ③ 한겨울에도 곳곳한 소나무와 같이 온갖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
- ④ 사철 내내 곧고 푸른 대나무와 같이 굳은 지조와 절개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
- ⑤ 밤하늘에 높이 떠 있는 달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수능 완성 - 작자 미상, 「님이 오마 하거늘~」 // 고1, 2013.06)

[22~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 건넌 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鵲)*이 떠 있거늘 ㉢ 가슴이
금죽하여* 풀쩍 뛰어 내달다가 ㉣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
㉤ 모쳐라 날랜 나일세망정 어혈(瘀血)* 질 뵈 하괘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백송골: 흰 송골매.
* 금죽하여: 심뜩하여.
* 어혈: 타박상 등으로 피멍이 드는 일.

(나)
㉠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 오는가 가는가 ㉡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뿔들*
서 있거늘 ㉢ 저야 님이로다.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
에 쥐고 곰비넝비 넝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말고 위령충창* 건너가서 정(情)앓말 하려 하고 결눈을
흘깃 보니 상년(上年) 철월 사흔날 갈아 벗긴 ㉣ 주추리 삼대*
살뜰이도 날 속였고나.

㉤ 모쳐라 밤일세망정 행여 낮이런들 남 웃길 뵈 하괘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이수로 가액하고: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 거머뿔들: 검은 듯 흰 듯한 것.
* 곰비넝비 넝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얼치락뒤치락 허둥거리며.
* 위령충창: 우당탕탕.
* 주추리 삼대: 발머리에 십여 둔 삼의 줄기.

22. <보기>를 바탕으로 하여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유사한 구조를 보이면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구조상 ㉠~㉡과 ㉢~㉣는 비슷한 위치에서 서로 대응되고 있지만 그 의미는 각각 다르다. 이는, (가)는 거만하게 위세를 뽐내다가 강자 앞에서 비굴해지는 탐관오리의 허장성세를, (나)는 오졌다고는 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입을 애타게 기다리는 여인의 심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 ① ㉠이 비판의 대상이라면, ㉡는 그리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이 거만함이 반영된 것이라면, ㉣는 기대감이 행동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이 시적 대상의 심리라면, ㉥는 시적 화자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이 성찰을 유도하는 소재라면, ㉧는 착각을 유발하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이 자신을 합리화한 표현이라면, ㉩는 자조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군.

23.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대구법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상황을 회화적으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④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내적 욕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우의적인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수능 완성 - 작자 미상, 「가시리」 // 고1, 2014.03)

(수능 특강 -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가」 // 고1, 2014.03)

[19 ~ 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날리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리잇고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잡사와 두어리마나는*
선하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나니 나는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나는
위 증즐가 대평성대(大平盛代)

- 작자 미상, 「가시리」 -

* 나는: 특별한 의미 없이, 음악적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여음.
* 잡사와 두어리마나는: 붙잡아 두고 싶지만.
* 선하면: 서운하면, 귀찮게 하면.
* 아니 올세라: 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 설은: 서러운.

(나)

어이 못 오던가 무삼 일로 못 오던가
너 오는 길에 무쇠로 성을 쌓고 성 안에 담 쌓고 담 안에 집을 짓고 집 안에 뒤주 놓고 뒤주 안에 케를 놓고 그 안에 너를 필자형(必字形)으로 결박하여 넣고 쌍배목(雙排目)* 결쇠에 금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잠가 있더냐 네 어이 그리 아니 오더냐

한 해도 열두 달이오 한 달 서른 날에 날 와 불 하루 없으라

-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

* 쌍배목: 쌍으로 된 문고리를 거는 쇠.

19.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열거법을 사용하여 시의 리듬감을 높이고 있다.
- ②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감탄사를 사용하여 부정적 현실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⑤ 배경을 묘사한 후 그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20. (가)의 시적 상황을 경험한 화자가 (나)의 노래를 했다고 가정할 때,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별 당시 입을 서운하게 했던 상황을 떠올리며 후회하고 있다.
- ② 입을 원망했던 이별 당시의 마음이 사라지면서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 ③ 입을 떠나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행동을 자책하고 있다.
- ④ 입이 돌아오기를 바라던 이별 당시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⑤ 입이 떠날 당시의 괴로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차분한 마음으로 입을 기다리고 있다.

21. (가)를 심화 학습하는 과정에서 <보기>의 자료를 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시리'의 형식상 특징]

- 3음보를 기본 율격으로 하여 리듬감을 형성함.
- 음악적 효과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하는 후렴구를 반복함.

['가시리'의 내용상 특징]

- 자신에게 닥친 부당한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한(恨)의 정서가 나타남.
- 이별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체념하는 소극적인 화자의 태도가 담겨 있음.

- ① '가시리 가시리있고'에서 3·3·2조의 3음보 율격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위 증줄가 대평성대'는 음악적 효과를 높여 주는 후렴구라고 할 수 있군.
- ③ '날리는 어찌 살라 하고'는 입을 붙잡지 못하고 체념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군.
- ④ '선하면 아니 올세라'에는 이별의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유가 드러나 있군.
- ⑤ '설은 님 보내옵나니'에는 어쩔 수 없이 이별을 받아들이는 한의 정서가 담겨 있군.

(수능 특강 - 이현보, 「어부단가」 // 고1, 2014.06)

[38~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중에 시름없으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 두고
인세(人世)를 다 잊었거니 날 가는 줄을 알라

굽어보면 천심녹수(千尋綠水) 돌아보니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十丈) 홍진(紅塵)*이 얼마나 가렸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하거든 더욱 무심(無心)하여라

장안(長安)을 돌아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잊은 때가 있으랴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없으랴

- 이현보, 「어부단가(漁父短歌)」 -

- * 홍진: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 북궐: 임금의 계신 경복궁의 다른 이름.
- * 제세현: 세상을 구제할 현명한 선비.

38.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다.
- ② 서로 다른 성격을 띤 공간을 대비하고 있다.
- ③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④ 대상의 의미를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⑤ 공감각적 심상을 활용하고 있다.

39. 윗글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일엽편주'를 타고 쓸쓸한 처지를 인식한다.
- ② 화자는 '만경파'에서 삶의 위대모임을 경험한다.
- ③ 화자는 '만첩청산'을 돌아보며 무력감을 느낀다.
- ④ 화자는 '월백'한 풍경에서 인생무상을 깨닫는다.
- ⑤ 화자는 '제세현'을 떠올려 근심에서 벗어나려 한다.

(수능 완성 - 윤선도, 「오우가」 // 고1, 2014.09)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살어리 살어리랏다 청산에 살어리랏다.
 멀위랑 득래랑 먹고 청산에 살어리랏다.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제1장>

우러라 우러라 새여 자고 니러 우러라 새여.
 널라와 시름 한 나도 자고 니러 우니로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제2장>

어디라 더디던 ㉠ 돌코 누리라 마치던 돌코.
 피리도 괴리도 업시 마자서 우니노라.
 알리알리 알랑성 알라리 알라 <제5장>
 - 작자 미상, 「청산별곡(靑山別曲)」 -

(나)
 내 벗이 맺이나 하니 수석(水石)과 송죽(松竹)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괴 더욱 반갑구나.
 두어라 이 다섯 밧기 또 더하여 무엇하리. <제1수>

꽃은 무슨 일로 피면서 쉬이 지고
 풀은 어이 하여 푸르는 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 아닐손 ㉡ 바위뿐인가 하노라. <제3수>

나무도 아닌 것이 풀도 아닌 것이
 곧기는 뉘 시기며* 속은 어이 비었느냐.
 저렇게 사시(四時)에 푸르니 그를 좋아하노라. <제5수>
 - 윤선도, 「오우가(五友歌)」 -

* 시기며: 시키며

3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후렴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높이고 있다.
 - ② (나)의 제1수는 전체 내용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4음보를 사용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각 연의 마지막 행에 시상이 집약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대구를 사용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8.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자아 성찰의 매개물이다.
 - ② ㉠과 ㉡은 모두 감정이 이입된 소재이다.
 - ③ ㉠은 설움을, ㉡은 흠모의 감정을 유발한다.
 - ④ ㉠은 수용해야 할, ㉡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 ⑤ ㉠은 초월적 힘을, ㉡은 세속적 권력을 상징한다.

39.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시가 속의 ‘자연’은 화자가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하는 ‘현실 도피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또는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때 화자는 다양한 자연물의 속성에서 본받고자 하는 덕목을 찾아 이를 바람직한 삶의 태도로 내면화한다.

- ① (가)의 ‘청산’은 현실 도피의 공간이다.
- ② (가)의 ‘새’는 화자가 합일하고자 하는 자연물이다.
- ③ (나)의 ‘다섯’은 바람직한 삶의 덕목을 담고 있다.
- ④ (나)의 ‘꽃’은 본받아야 할 대상과 대조적인 존재이다.
- ⑤ (나)의 ‘그’는 화자가 내면화하고 싶은 모습을 지니고 있다.

(수능 완성 - 작자 미상, 「잠노래」 // 고1, 2015.03)

[35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내 틈으로 들어오느냐
 고모장지 세살장지 가로단이 여단이 암돌찌귀 수돌찌귀* 배
 목걸새* 똑딱 박고 용거복 ㉡ 자물쇠로 수기수기 채웠는데 병
 풍이라 덜컹 접은 족자라 데굴데굴 마느냐 네 어내 틈으로 들
 어오느냐
 어인지 너 온 날 밤이면 잠 못 들어 하노라

- 작자 미상 -

* 암돌찌귀 수돌찌귀: 문짝을 문설주에 달고 여단을 위한 쇠붙이.
 * 배목걸새: 문을 잠그고 빗장으로 쓰는 ‘ㄱ’자 모양의 쇠.

(나)
 잠아 잠아 짙은 잠아 이 내 눈에 쌓인 잠아
 얹치불구 이 내 잠아 검치두덕* 이 내 잠아
 어제 간밤 오던 잠이 오늘 아침 다시 오네
 잠아 잠아 무삼 잠고 가라가라 멀리 가라
 세상 사람 무수한테 구태 너는 간 테 없어
 원치 않는 이 내 눈에 이렇듯이 자심하노
 주야에 한가하여 월명동창 혼자 앉아
 삼사경 깊은 ㉢ 발을 헛되어 보내면서
 잠 못 들어 한하는데 그런 사람 있건마는
 무상불청* ㉣ 원망 소리 올 때마다 들났고니
 석반을 거두치고 황혼이 되듯마듯
 낮에 못한 남은 일을 밤에 하려 마음먹고
 언하당* 황혼이라 섬섬옥수 바삐 들어
 등잔 앞에 고개 숙여 실 한 바람 불어 내어
 더문더문 질긔 ㉤ 바늘 두엇 뜸 뜨듯마듯
 난데없는 이 내 잠이 소리 없이 달려드네

눈썹 속에 숨었는가 눈 알로 솟아온가
 이 눈 저 눈 왕래하며 무삼 요술 피우는고
 맑고 맑은 이 내 눈이 절로절로 희미하다

- 작자 미상, 「잠노래」 -

- * 검치두덕: 욕심 언덕.
- * 무삼불청: 칭하지 않은.
- * 언하당: 말을 마치자마자.

3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변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 ③ 시선의 이동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의인화된 대상에게 말을 건네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물에서 받은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의 내적 심리가 드러난 것이다.
- ② ㉡: 부정적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 ③ ㉢: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처지를 한탄하는 시간이다.
- ④ ㉣: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다.
- ⑤ ㉤: 삶을 살아가며 느끼는 화자의 애환이 담겨 있다.

37. <보기>는 (가)와 (나)의 화자가 처한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A,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A	B
(가)의 화자	(나)의 화자
잠을 이루기 어려운 상황	잠을 이겨 내기 어려운 상황

- ① A는 B와 달리 가사 노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화자의 의도와 다르게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A는 화자에게 소외감을, B는 화자에게 외로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현실에서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외부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능 특강 - 월명사, 「제망매가」 // 고1, 2015.09)

[34~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생사(生死) 길은
 에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것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오저.
 아아, ㉡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월명사, 「제망매가」 -

(나) ㉢ 오백 년 도읍지를 필마(匹馬)로 도라드니,
 ㉣ 산천은 의구(依舊)하되 인걸(人傑)은 간 되 없다.
 어즈버, ㉤ 태평연월(太平烟月)이 꿈이런가 하노라.

- 길재 -

34. (가), (나)의 형식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4음보의 율격을 가진다.
- ② (나)는 시적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3단 구성의 짜임을 취한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이야기 전달에 목적이 있다.
- ⑤ (가), (나)는 감탄사를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낸다.

35. <보기>를 참고하여 ㉠~㉣에 나타난 작가의 처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작가의 삶에 대한 이해는 작품 감상의 폭을 넓혀준다. (가)는 승려인 작가가 죽은 누이를 추모하기 위한 작품이고, (나)는 고려 왕조가 몰락하자 모친 봉양을 핑계로 고향에 은거한 작가가 고려의 도읍지였던 개성을 찾아 느끼는 감회를 읊고 있는 작품이다.

- ① ㉠: 어느 가을의 때 이른 바람이라는 인식을 통해 예기치 못한 누이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군.
- ② ㉡: 극락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도를 닦으며 기다리겠다는 다짐을 통해 슬픔을 종교의 힘으로 극복하려 하는군.
- ③ ㉢: 오백 년 도읍지라는 시간과 장소의 제시를 통해 단절된 고려 왕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군.
- ④ ㉣: 자연은 변함없는데 고려의 옛 충신들은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생무상을 느끼고 있군.
- ⑤ ㉤: 태평한 세상이 꿈속에만 있겠느냐는 각성을 통해 고려 왕조를 다시 찾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군.

(수능 특강 - 맹사성, 「강호사시가」 // 고1, 2015.11)

[35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막걸리 놓고 냇가에서 물고기가 안주로다.

㉠ 뭍이 한가해움도 ㉡ 임금님 은혜로다. <제1수>

강호(江湖)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미더운 강물결은 보내나니 바람이로다.

이 뭍이 서늘하움도 임금님 은혜로다. <제2수>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찌 있다.
작은 배에 그물 실어 훌리 띄워 던져두고,

이 뭍이 세월 보내움도 임금님 은혜로다. <제3수>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한 자가 넘네.
삿갓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로 옷을 삼아

이 뭍이 춥지 아니하움도 임금님 은혜로다. <제4수>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도롱이: 짚이나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나)

세상사 중에 처음에는 얼토당토않고 꾀이하지만, 나중에는 진실인 것이 있다. 아마도 과일나무 접붙이는 것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의 ㉣선친이 살아 계실 때였다. 과일나무에 접을 잘 붙이는 키다리 전씨(田氏)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친은 그에게 접을 붙이게 해 보았다. 정원에는 맛이 없는 배나무 두 그루가 있었는데, 전씨는 모두 톱으로 밑동을 잘랐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맛있다고 이름난 배나무를 구하여 몇 가지를 자르더니, 잘라낸 그루터기에 접목시키고는 활흙으로 그곳을 밭았다. 당시에는 그것을 보면서 터무니없다고 여겼다. 비록 접을 붙인 나무에서 짝이 트고 잎이 돌아났지만, 꾀이하다고만 여겼다. 그러나 여름에 잎이 무성하게 되고, 가을에 배가 주렁주렁 열렸다. 그제야 '나중에는 진실인 것이 있음'을 믿게 되었고, 처음에 얼토당토않고 꾀이하다고 여겼던 의심이 비로소 마음에서 사라졌다.

선친이 돌아가신 지 9년이 흘렀지만, 나무를 보거나 배를 먹을 때에는 아버지의 얼굴이 항상 떠올랐다. 그래서 간혹 나무를 부여잡고 목 놓아 울면서 차마 떠나지 못한 적도 있었다. 옛사람은 소백(召伯)과 한선자(韓宣子)의 일* 때문에 돌배나무를 베지 않은 채 잘 가꾸었다는 일화가 있다. 하물며 아버지가 소유하시다가 자식에게 물려준 것임에랴! 그 공경하는 마음은 베지 않고 잘 가꾸는 것에 어찌 비할 바가 있겠는가? 그 열매는 또한 꿀어앉아 먹어야 할 것이다.

생각건대, 선친께서 나에게 이 나무를 물려주신 것은 아마도 내가 이 배나무를 본받아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 가라는 뜻일 것이다. 그래서 이를 기록하여 경계로 삼는다.

- 이규보, 「접과기(接菓記)」 -

*소백(召伯)과 한선자(韓宣子)의 일: 주(周)나라 때 소백(召伯)의 은덕에 감화된 백성들이 그가 쉬었던 돌배나무도 차마 베지 않았다는 고사. 노나라 계무자는 노나라의 예법을 칭찬한 한선자가 자신의 정원에 있는 나무를 칭찬하자 한선자의 은혜를 간직하고자 그 나무를 베지 않았다는 고사.

3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향하는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다.
- ② 이상 세계에 대한 예찬이 드러나 있다.
- ③ 속세를 벗어나서 유유자적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부정적인 상황에 맞서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를 반성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36. <보기>의 A~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가)의 각 수는 다음과 같은 짜임을 가지고 있다.

구분	구조 및 내용
초장	강호에 (A)이 드니 (B)
중장	(C)
종장	이 뭍이 (D)도 (E)은혜로다.

- ① 제1수~제4수의 A에는 화자가 맞이하게 되는 계절이 드러나 있다.
- ② 제2수와 제3수의 B에는 자연 경관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드러나 있다.
- ③ 제1수와 제3수의 C에는 화자의 구체적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④ 제1수와 제2수의 D에는 초장과 중장의 상황 속에서 화자가 느끼고 있는 자신의 상태가 드러나 있다.
- ⑤ 제1수~제4수의 E에는 D를 가능하게 해 주는 존재로 화자가 인식하는 대상이 드러나 있다.

37.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이 작품은 글쓴이가 생활 속에서 갖게 된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은 세상의 이치에 대한 깨달음을 주변의 인물이나 사물, 고사(故事), 일상의 경험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 더 나아가 글쓴이는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독자들에게까지 전달하여 교훈을 주고자 하고 있다.

- ① ‘전씨’가 ‘이름난 배나무’를 구하여 ‘집목’시키는 것을 보고 글쓴이가 ‘터무니없다’고 여기는 것은 생활 속에서 갖게 된 생각을 드러낸 것이군.
- ② ‘접을 붙인 나무’에서 돌아난 ‘씩’과 ‘잎’은 글쓴이가 ‘괴이하다고 여겼던 의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소재로 사용된 것이군.
- ③ ‘소백(召伯)과 한선자(韓宣子)의 일’이라는 고사(故事)를 제시하여 아버지에 대한 글쓴이의 감정을 강조하여 드러내고 있군.
- ④ 글쓴이가 ‘배나무’를 통해 세상의 이치에 대해 얻은 깨달음은 ‘잘못을 고치고 선으로 옮겨 가라’라는 것이겠군.
- ⑤ ‘배나무’와 관련된 경험을 ‘기록하여 경계로 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교훈을 전달하려는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군.

38.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뭍에게 ㉠은 고마움을 느끼는 대상이고, ㉡에게 ㉢은 그리움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② 이 뭍에게 ㉠은 인식이 바뀌는 대상이고, ㉡에게 ㉢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 ③ 이 뭍에게 ㉠은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고, ㉡에게 ㉢은 인식이 바뀌는 대상이다.
- ④ 이 뭍에게 ㉠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고, ㉡에게 ㉢은 그리움을 느끼는 대상이다.
- ⑤ 이 뭍에게 ㉠은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대상이고, ㉡에게 ㉢은 고마움을 느끼는 대상이다.

(수능 완성 - 이명한, 「꿈에 다니는 길아~」 // 고1, 2017.06) [43~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방(房) 안에 켜 있는 촛(燭)불 놀과 이별하였기에
겉으로 눈물 지고 속 타는 줄 모르시고
저 촛(燭)불 날과 같아서 속 타는 줄 모르도다

- 이 개 -

(나)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면
님의 집 창(窓) 밖에 석로(石路)라도 닳으리라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 이명한 -

(다) 님이 오마 하거늘 저너뎡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 나서 대문 나가 지방 위에 치달아 앉아 이수(以手)로 가액(加額)하고 오는가 가나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뿔들 서 있거늘 저야 님이로다. 버선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꿈비님의 님비꿈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말고 워령충창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 하고
결눈을 흘깃 보니 상년(上年) 칠월 사흘날
값아 벗긴 주추리 삼대 살뜰이도 날 속였구나
모쳐라 밤일세망정 행여 낮이런들 남 웃길 뻔 하래라

- 작자 미상 -

* 이수로 가액하고: 손을 들어 이마에 얹고.

* 거머뿔들: 겹은 듯 흰 듯한 것.

* 꿈비님의 님비꿈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잊지랴뒤치랴 허둥거리는 모양.

* 워령충창: 우당탕탕.

* 주추리 삼대: 발머리에 모아 세워 둔 삼의 줄기.

43.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자조적 어조를 통해 과거의 행동에 대한 화자의 자책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역설적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⑤ 가정적 상황을 제시하여 현재에 비해 미래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44.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겉으로 눈물 지고'에서 '눈물'은 훗날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화자의 슬픔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가)의 '저 촛(燭)불 날과 같아서'에서 '촛(燭)불'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다.
- ③ (나)의 '꿈에 다니는 길'에서 '꿈'에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 ④ (나)의 '석로(石路)라도 났으리라'에서 '났으리라'는 입에 대한 화자의 간절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그를 슬퍼하노라'에서 '슬퍼하노라'는 자신을 찾아 주지 않는 입에 대한 화자의 원망이 담겨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조선 후기에 등장한 사설시조는 형식 면에서 평시조와 달리 중장이 제한 없이 길어졌다. 내용 면에서는 실생활 소재들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주로 다루었는데 솔직함, 해학성, 애정을 서슴없이 표현하려는 대담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하며 비유, 상징 등 다양한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 냈다.

- ① '곰비넙비', '천방지방' 같은 음성상징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군.
- ②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선', '신'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입의 소중함을 상징하고 있군.
- ③ '주추리 삼대'를 입으로 착각하여 달려가는 화자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서 해학성을 느낄 수 있군.
- ④ 입을 그리워하는 절실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 화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다 보니 중장이 길어졌군.
- ⑤ '진 데 마른 데 가리지' 앓고 입에게 가서 '정(情)앓말'을 하려는 모습에서 애정을 표현하려는 화자의 대담성을 엿볼 수 있군.

(수능 특강 - 박인로, 「누항사」 // 고1, 2018.06)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리석고 세상물정 어둡기는 나보다 더한 이 없다
 길흥화복을 하늘에 맡겨 두고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가를 지어 두고
 굶은 날씨에 썩은 짚이 땀감이 되어
 세 홉 밥 닷 홉 죽에 연기(煙氣)도 많기도 많구나
 설 데운 숯불에 고픈 배를 속일 뿐이로다
 ㉠ 생애 이러하다 대장부의 뜻을 옮기겠는가
 안빈일념(安貧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이서
 옳은 일을 좇아 살려 하나 날이 갈수록 어긋난다
 <중략>

소 한 번 주마 하고 영성하게 하는 말씀
 친절하다 여긴 집에
 ㉡ 달 없는 황혼에 허위허위 달려가서
 굳게 닫은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큰 기침 에헬이를 오래토록 하온 후에
 어와 그 뒤신고 염치 없는 내읍노라
 초경도 거윈데 그 어찌 와 계신고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건마는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걱정 많아 왔노라
 공짜로나 값을 쳐서나 줄 직도 하지마는
 다만 어제 밤에 건넛집 저 사람이
 목 붉은 수평주 구슬 같은 기름에 구워 내고

[A]
 갓 익은 삼해주(三亥酒)를 취하도록 권하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이 아니 갚을런고
 내일로 주마 하고 큰 언약 하였거든
 실약(失約)이 미편(未便)하니* 말하기가 어려왜라
 사실이 그러하면 설마 어이할고
 현 모자 숙여 쓰고 축 없는 질신에 설피설피 물러 오니
 풍채 적은 모습에 개 짖을 뿐이로다
 누추한 집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복창에 기대 앉아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오디새는 이 내 한을 돕는구나

- ㉢ 아침이 끝나도록 슬퍼하며 먼 들을 바라보니
 즐거운 농가(農歌)도 흥 없이 들리는구나
 세상 인정 모른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 ㉣ 아까운 저 쟁기*는 벼보님도 좋을시고*
 가시 영킨 묵은 밭도 쉽게 갈려마는
 빈 집 벽 가운데에 쓸데없이 걸렸구나
 봄농사도 거의로다 팽개쳐 던져 두자
 강호(江湖)에서 큰 꿈을 생각한 지도 오래더니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 아아 있었구나
 저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가 많기도 많구나
- ㉤ 교양 있는 선비들이 낚싯대 하나 빌려다오
 갈대꽃 깊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어
 입자 없는 풍월강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누항: 누추한 곳.

- * 안빈일념: 가난 속에서도 마음을 편히 갖겠다는 생각.
- * 실약이 미편하니: 약속을 어기기가 어려우니.
- * 쟁기: 말이나 소에 끌려 논밭을 가는 농기구.
- * 뱃보님도 좋을시고: 쟁기 날이 잘 관리된 상태라는 의미로 추정됨.

(나)

다음은 어느 중로(中老)의 여인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여인이 젊었을 때였다. 남편이 거둬 사업에 실패하자, 이들 내외는 갑자기 가난 속에 빠지고 말았다.

남편은 다시 일어나 사과 장사를 시작했다. 서울에서 사과를 싣고 춘천에 갔다 넘기면 다소의 이윤이 생겼다.

그런데 한 번은, 춘천으로 떠난 남편이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어도 돌아오지를 않았다. 제 날로 돌아오기는 어렵지만, 이틀째에는 틀림없이 돌아오는 남편이었다. 아내는 기다리다 못해 닳새째 되는 날 남편을 찾아 춘천으로 떠났다.

“춘천에만 닿으면 만나려니 했지요. 춘천을 손바닥만하게 알았나 봐요. 정말 막막하더군요. 하는 수 없이 여관을 뒤졌지요. 여관이란 여관은 모조리 다 뒤졌지만, 그이는 없었어요. 하룻밤을 여관에서 뜬눈으로 새웠지요. 이튿날 아침, 문득 그이의 친한 친구 한 분이 도청에 계시다는 것이 생각나서, 그분을 찾아 나섰지요. 가는 길에 흑시나 하고 정거장에 들러 봤더니…….”

매표구 앞에 늘어진 줄 속에 남편이 서 있었다. 아내는 너무 반갑고 원망스러워 말이 나오지 않았다.

트럭에다 사과를 싣고 춘천으로 떠난 남편은, 가는 길에 사람을 몇 태웠다고 했다. 그들이 사과 가마니를 깔고 앉는 바람에 사과가 상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없었다. 남편은 도저히 손해를 보아서 안 될 처지였기에 친구의 집에 기숙을 하면서, 시장 옆에 자리를 구해 사과 소매를 시작했다. 그래서, 어쩔만 늦게서야 겨우 다 팔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전보도 올게 제 구실을 하지 못하던 8·15 직후였으니…….

함께 춘천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차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그때만 해도 세 시간 남아 걸리던 **경춘선**, 남편은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아내는 한 손을 맡긴 채 너무도 행복해서 그저 황홀에 잠길 뿐이었다.

[B] 다.

그 남편은 그러나 6:25 때 죽었다고 한다. 여인은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모진 세파(世波)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대학엘 다니고 있으니, 그이에게 조금은 면목이 선 것도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 올 수 있었던 것은, 춘천서 서울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이의 손길,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여인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맺었다.

지난날의 가난은 잊지 않는 게 좋겠다. 더구나 그 속에 빛나던 사랑만은 잊지 말아야겠다. “행복은 반드시 부와 일치하진 않는다.”라는 말은 결코 진부한 일 편의 경구(警句)만은 아니다.

- 김소운, 「가난한 날의 행복」 -

4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인물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 ② 감정의 절제를 통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 ③ 공간의 이동을 통해 대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구체적 일화를 활용하여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43. [A]와 [B]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규칙적인 음보 사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B]는 경구를 활용하여 글을 효과적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 ③ [A]는 [B]와 달리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B]는 [A]와 달리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여 구체적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대화를 활용하여 중심인물의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누항사」는 전란을 겪은 사대부가 누항에서 스스로 노동하며 가난하게 살면서도 이상적 삶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화자가 처한 상황과 심리의 변화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나타낸다.

	㉠	㉡	㉢
상황	몹소 농사를 지어야 함.	농사를 짓기 위한 소를 빌리지 못함.	명월청풍과 더불어 한가롭게 삶.
심리	안빈일념을 추구함.	암담함을 느낌.	시름을 잊고자 함.

- ① ㉠에는 ㉡의 심리에서 드러나는 가치를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 ② ㉢에는 ㉡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화자의 다급한 심정이 제시되어 있다.
- ③ ㉢에는 ㉡의 심리가 화자의 처량한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④ ㉢에는 ㉢의 심리가 화자의 눈에 비친 대상에 투영되어 있다.
- ⑤ ㉢에는 ㉢의 상황을 실천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45. (가)의 **풍월강산**과 (나)의 **경춘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한 것은?

- ① ‘풍월강산’은 환상적 세계를, ‘경춘선’은 낭만적 세계를 의미하는 공간이다.
- ② ‘풍월강산’은 현재의 소망을 다짐하는, ‘경춘선’은 과거의 추억이 깃든 공간이다.
- ③ ‘풍월강산’은 과거에 대한 동경을, ‘경춘선’은 현재의 자긍심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 ④ ‘풍월강산’은 현재의 어려움을 비판하는, ‘경춘선’은 미래의 희망을 기원하는 공간이다.
- ⑤ ‘풍월강산’은 전통적인 삶의 모습을, ‘경춘선’은 현대적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공간이다.

(수능 특강 - 송이, 「남은 다 자는 밤에~」 // 고1, 2018.11)
[29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 남은 다 자는 밤에 너 어이 홀로 지야
옥장(玉帳) 깊은 곳에 차는 님 생각는고
- ㉡ 천리(千里)에 외로운 쉼만 오락가락 흐노라

- 송이 -

(나)

그림고 그리워도 볼 수가 없어
 마음은 바람에 나부끼는 종이 연 같아라
 ㉢ dot자리라면 말아 두고 돌이라면 굴러 낼 수 있으련만
 이 마음의 응어리 어느 때나 고칠까
그리운 사람은 멀리 하늘 모퉁이에 있는데
 구름 뜬 하늘 아래 늘어진 푸른 버들
 아득한 시름은 끝이 없어라
 ㉣ 홀로 앉아 공후를 타니
 공후는 하소연하는 듯 흐느끼는 듯
 다 타도록 비단 적삼 젖는 줄도 몰랐네
 원컨대 쌍쌍이 나는 깃가 되어서
 임 향한 창 앞에 서 있고자
 원컨대 **밝은 달이 되어**
임의 창문 휘장 뚫어 비취 들고자
 ㉤ 슬픈 노래 잘 못 드는 밤 어찌 이리 길고
 꿈속에서도 요산 남쪽 건너지 못하였네
기나긴 그리움에 공연히 애만 끊노라

- 성현, 「장상사(長相思)」 -

(다)

명황(明皇)*은 귀비(貴妃)*를 주거나 여히여니
 썩다 썩다 혼들 우리ㄴ티 설울런가
 사라져 못 보니 더욱 흐나 망극(罔極)하다
수심(愁心)은 불이 되어 가슴에 피어나니

절로 난 그 불이 **님의 탓도 아니로디**
 내히 하 설위 수인씨(燧人氏)*를 원(怨)호노라
 함양궁전(咸陽宮殿)*이 다된 삼월(三月) 불거셔도
 지금(至今)에 그 불을 오래 타다 흐것마는
 이 원수(怨讎)이 불은 몇 삼월(三月)을 디내연고
 눈물은 임우(霖雨)이 되고 한숨은 바람이 되어
 불거니 썩거니 그칠 적도 업서시니
 이 비로 더 불을 썩죽도 흐다마는
 엇찌흔 뵈인디 풍우중(風雨中)에 투노래라
 수화상극(水火相克)*도 거죽말이 되었고야
 피거니 썩거니 승부(勝負) 업시 싸호거든
 죠고만흐 몸은 전장(戰場)이 되었는다
 아이고 하느님아
 칠석(七夕)비 누리워 이 싸흠 말이쇼셔
 어엿은 이 몸은 살가 너겨 바라니다
 알고져 전생(前生)의 모습 죄(罪)를 지어두고
여월 제 검던 머리 회도록 못 보노고
 스랑은 혜엄업서* 노소(老少)도 모르는가
 십년전(十年前) 맹서(盟誓)를 오늘 문득 생각흐니
 금석(金石) 갓튼 밀숨이 어제문듯 그제문듯 귀에 징징하야시니
 이 막음 이 맹서(盟誓) 진토(塵土)이 되다 니질소냐
 아소은 **내 뜻은 다시 불가 바라거든**
 일년(一年) 삼백일(三百日)에 니친 홀니 이질소냐
 - 박인로, 「상사곡(相思曲)」 -

*명황, 귀비: 당나라 현종과 양귀비. 안사의 난으로 양귀비가 죽음.
 *수인씨: 중국 고대 전설상의 제왕. 불을 쓰는 밤을 전하였다고 함.
 *함양궁전: 진나라 때 중국 함양에 지어진 궁전으로 항우가 불태웠는데 삼 개월 동안 꺼지지 않았다고 함.
 *수화상극: 물과 불은 서로 용납하지 않는다는 뜻.
 *혜엄업서: 생각이 없어서.

29. (가)~(다)에 대한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언어유희를 활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30.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남'과 화자의 서로 다른 상황을 통해 화자가 놓인 외로운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② ㉡: 화자의 '꿈'을 통해 화자가 먼 곳에서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뫼자리', '뫼'과 대비되는 화자의 마음을 통해 화자의 맺혀 있는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화자가 연주하는 '공후'의 소리를 통해 화자의 답답함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화자가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 화자의 애절한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31. <보기>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충신연주지사'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를 의미하는데, (나)와 (다)가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주제 의식을 담은 노래들은 신하가 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이별이 오래 지속된 상황에서 생긴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왕에 대한 신하의 사랑과 그리움을 주로 표현하며,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왕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 ① (나)의 '그리운 사람'이 '멀리 하늘 모퉁이에 있는데'라고 한 것은 신하가 왕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나)의 '기나긴 그리움에 공연히 애만 끊노라'라고 한 것은 신하가 왕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③ (다)의 '수심'이 '가슴'에 피어난 것이 '늪의 탓도 아니로되'라고 한 것은 신하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왕을 원망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④ (다)의 '여훤 제 검던 머리 희도록 못 보노고'라고 한 것은 신하와 왕이 오랫동안 이별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⑤ (나)의 '밝은 달이 되어' '임의 창문 휘장'에 비추겠다는 것과 (다)의 '내 뜻은 다시 불가 브라거든'이라고 한 것은 왕에 대한 신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겠군.

3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심리 전환을 표출하고, ㉡은 화자의 성격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② ㉠은 화자의 현재 상황을 표현하고, ㉡은 화자의 미래 모습을 암시하고 있다.
- ③ ㉠은 화자의 내적인 갈등을 강조하고, ㉡은 화자의 외적인 화해를 보여주고 있다.
- ④ ㉠은 화자의 간절한 바람을 드러내고, ㉡은 화자의 애타는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은 화자의 반성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은 화자의 실천적인 행위를 제시하고 있다.

(수능 특강 - 작자 미상, 「님이 오마 하거늘~」 // 고2, 2013.03 A형)

[37 ~ 3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님이 오마 하거늘 저녁밥을 일찍 지어 먹고,
중문(中門) 나서 대문(大門) 나가 지방 위에 올라가 앉아 손을 이마에 대고 오는가 가는가 건넌 산 바라보니 거머희뜩 서 있거늘 저것이 님이로구나. 버선을 벗어 품에 품고 신 벗어 손에 쥐고 곰비님의 님비곰비 천방지방 지방천방 진 데 마른 데를 가리지 말고 워렁통탕 건너가서 정(情)옛말 하려 하고 결눈으로 흘길 보니 작년 칠월 사흘날 껌질 벗긴 주추리 삼대가 알 밭게도 날 속였구나.

모처럼 밤이기에 망정이지 행여나 낮이런들 남 옷길 뻘하였어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나)

정월 냇물은 아으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세상 가운데 태어난 이몸이여 홀로 살아가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정월령>

오월 오일에 아으 단옷날 아침 약(藥)은
천 년을 오래 사실 약이라 바치옵니다. / 아으 동동다리

<오월령>

유월 보름에 아으 벼랑에 버린 빗 같구나.
돌아보실 입을 잠시나마 따르겠습니다. / 아으 동동다리

<유월령>

칠월 보름에 아으 백중날 음식을 차려두고
임과 함께 지내고자 소원을 비웁니다. / 아으 동동다리

<칠월령>

시월에 아으 잘게 썬 보리수나무 같구나.
꺾어 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어라. / 아으 동동다리

<시월령>

십일월 봉당자리*에 아으 훌적삼 덮고 누워
슬픈 일이로구나. 고운 입을 여의고 각각 살아가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십일월령>

- 작자 미상, 「동동(動動)」 -

* 봉당자리 :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흠바닥.

3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다.
- ② 자신의 처지에 대한 원망이 표출되어 있다.
- ③ 상대에 대한 연민의 정서가 노출되어 있다.
- ④ 화자가 처한 참담한 생활상이 나타나 있다.
- ⑤ 자연에 대한 친화적 태도가 부각되어 있다.

38. <보기>에 근거하여 (가)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한 작품 속에 화자의 상이한 두 가지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즉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타인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꾸밈없이 행동하는 모습(I)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뒤에 보이는 모습(II)이 그것이다.

I				II	
ㄱ	ㄴ	ㄷ	ㄹ	→	ㅁ
상황	착각	행동	자각		반응

- ① ㄱ : '님이~바라보니'는 입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 ② ㄴ : '거머희뚝~님이로구나'는 간절한 그리움으로 인해 생긴 착각이다.
- ③ ㄷ : '버선을~건너가서'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취한 행동이다.
- ④ ㄹ : '정(情)옛말~속였구나'는 사랑하는 입에게 속았음을 자각하는 부분이다.
- ⑤ ㅁ : '모쳐라~뻥하였어라'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자신의 행동을 애써 합리화하는 반응이다

39.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월령>의 '냇물'과 <십일월령>의 '봉당자리'는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대상이다.
- ② <오월령>의 '바치읍니다'와 <칠월령>의 '비읍니다'에는 정성과 기원이 담겨 있다.
- ③ <유월령>의 '따르겠습니다'와 <칠월령>의 '함께 지내고자'에는 소망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 ④ <유월령>의 '빚'과 <시월령>의 '보리수나무'는 버림받은 화자의 신세를 비유한 사물이다.
- ⑤ <시월령>의 '없어라'와 <십일월령>의 '각각 살아가는구나'에는 고독하게 지내는 삶이 드러나 있다.

(수능 특강 - 정극인, 「상춘곡」 // 고2, 2013.09 A형)

[34~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엇그제 겨울지나 새봄이 돌아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피어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細雨) 중에 푸르도다] [A]

칼로 말라냈나 붓으로 그려냈나
 조화신공(造化神功)이 사물마다 야단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겨워
 소리마다 고태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이야 다름쓰나
 사립문 앞을 걸어 보고 정자에 앉아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여 산일(山日)이 적적한데
 한중진미(閒中眞味)*를 아는 사람 없이 혼자로다

㉡여보게, 이웃들아 산수 구경 가져꾸나
 산책은 오늘하고 목욕은 내일하세] [B]

아침에 산나물 캐고 저녁에 낚시하세
 이제 갓 익은 술을 갈진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수를 세며 마시리라] [C]

화풍(和風)이 문득 불어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에 진다] [D]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이라
 소동(小童) 아이더러 술집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동이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아
 ㉢고운 모래 맑은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맑은 물을 굽어보니 떠오른 것이 도화(桃花)로다
 ㉣무릉(武陵)이 가깝도다 저 들이 그 곳인가
 소나무 사이의 좁은 길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수많은 촌락이 곳곳에 벌여 있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수놓은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넘치는구나] [E]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에 어떤 벗이 있겠는가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하면 어떠하리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 소요음영: 천천히 거닐며 시를 읊조림.
 * 한중진미: 한가로운 가운데 느끼는 참된 즐거움.
 * 미음완보: 나직이 시를 읊조리며 천천히 걸음.
 * 연하일휘: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
 * 단표누항: 소박하고 청빈한 생활을 이룸.
 * 백년행락: 한평생 즐겁게 지냄.

34.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관념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생활과 밀착된 주제를 다룬다.
- ② 자연에서 사는 삶을 노래하여 강호가사에 영향을 끼쳤다.
- ③ 연속된 4음보의 율격으로 안정된 리듬감을 형성한다.
- ④ 양반 사대부에 의해 창작되어 한자어의 사용이 많다.
- ⑤ 마지막 행의 형식이 시조의 종장 형식과 유사하다.

3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자연물을 이용하여 계절적 정서와 상반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탈속적 삶에 동참할 것을 촉구 하고 있다.
- ③ ㉢: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자연과 동화된 기쁨을 표현 하고 있다.
- ④ ㉣: 관용적인 연상을 통해 이상향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
- ⑤ ㉤: 주체와 객체를 바꾸어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가치관을 나타내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사 문학은 조선 전기 사대부들이 지녔던 삶의 양식이나 그들의 사유체계를 잘 담고 있다. 「상춘곡」에는 ‘절제와 균 형’이라는 유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조선조 사대부들의 사고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① [A]: ‘석양’과 ‘세우’의 하강 이미지 속에 피어나는 ‘꽃’과 파 랑게 돌는 ‘풀’의 상승 이미지는 조화를 이루고 있군.
- ② [B]: ‘오늘’과 ‘내일’로, ‘아침’과 ‘저녁’으로 봄놀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안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군.
- ③ [C]: 술을 과하게 마시지 않으려고 ‘꽃나무 가지’로 술잔을 세는 모습에서 사대부의 절제된 풍류가 느껴지는군.
- ④ [D]: 술과 더불어 ‘청향’과 ‘낙홍’에 취해 고조되는 감정을 ‘진다’는 표현을 통해 다스리는군.
- ⑤ [E]: ‘검은 들’이 ‘봄빛’으로 넘치는 것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합일을 이루어 감을 의미하는군.

(수능 특강 - 맹사성, 「강호사시가」 // 고2, 2013.11 B형)

[35~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호(江湖)에 봄이 드니 미친 흥(興)이 절로 난다.
 탁료계변(濁醪溪邊)*에 금린어(錦鱗魚)* | 안주(安)주다.
 이 몸이 한가(閒暇)해음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여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없다.
 ㉠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는 이 바람이다.
 이 몸이 서늘해음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소정(小艇)에 그물 실어 흘리* 띄워 던져두고,
 이 몸이 소일(消日)해음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강호(江湖)에 겨울이 드니 눈 깊이 자히 남다*.
 ㉡ 샷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옷을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해음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江湖四時歌)」 -

- * 탁료계변: 막걸리를 마시며 노는 시냇가.
- * 금린어: 싱싱한 물고기.
- * 역군은이샀다: 역시 임금님의 은혜이다.
- * 흘리: 흐르도록.
- * 자히 남다: 한 자가 넘는다.
- * 누역: 짚으로 만든 비옷.

(나) 된 서리 빠진 후의 산 빛이 금수(錦繡)로다.

㉢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의 펼쳐져 있는가.
 어적(漁笛)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草木) 다 진 후의 강산(江山)이 묻혔거늘
 조물(造物)이 야단스러워 빙설(氷雪)로 꾸며내니
 ㉣ 경궁요대(瓊宮瑤臺)*와 옥해은산(玉海銀山)*이 안저(眼底)*의 펼쳐져 있구나.

인간(人間)을 떠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은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람문은 뉘 단으며 떨어진 꽃은 뉘 쓸려노.
 아침이 낮브거니* 저녁이라 싫겠느냐.
 ㉤ 오늘이 부족(不足)하니 내일(來日)이라 유여(有餘)하라.

- 송준, 「면양정가(俛仰亭歌)」 -

- * 만경: 아주 많은 이랑. 지면이나 수면이 아주 넓음을 이르는 말.
- * 경궁요대: 아름다운 구슬로 꾸민 궁궐과 대.
- * 옥해은산: 옥으로 된 바다와 은으로 된 산.
- * 안저: 눈 아래.
- * 낮브거니: 부족하니.

3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을 매개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반성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의 속성을 활용하여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덕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풍류를 즐기고 있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심리가 투영된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내적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강호사시사」는 유교적 이상이 현실화된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여기에는 화자의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조화와 함께 개인의 평안한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치적에 대한 감사가 나타나 있다.

- ① 각 수의 초장과 중장은 주로 화자의 사적인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군.
- ② 각 수 종장의 ‘이 몸이 ~해움도’는 사적인 삶의 모습을 압축하여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군.
- ③ 각 수 종장의 ‘역군은(亦君恩)이샷다’는 신하라는 공적인 삶과 관련지어 한 말이라 할 수 있군.
- ④ 화자는 걱정이나 탈 없이 만족스럽게 살아가는 삶을 가능하게 한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 하고 있군.
- ⑤ 화자의 공적인 삶이 사적인 삶과 조화를 이루게 된 이유는 유교적 이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화자의 노력 때문이군.

37.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강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과 어우러진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소박한 생활을 나타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의 검소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누렇게 익은 곡식을 황운에 비유하여 가을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눈 덮인 자연의 모습을 미화하여 화자가 처한 공간의 아름다운 경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⑤ ㉤: 대구와 설의를 활용하여 덧없이 흘러보낸 시간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수능 완성 - 작자 미상, 「꿈에 다니는 길이~」 // 고2, 2014.09 A형)

(수능 특강 - 작자 미상, 「나무도 바위들도~」 // 고2, 2014.09 A형)

[37 ~ 3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꿈에 다니는 길이 자취가 남는다면
 님의 집 창(窓) 밖에 석로(石路)라도 닳으리라
 꿈길이 자취 없으니 그를 슬퍼하노라.
 - 이명환 -

(나)
 바람도 쉬어 넘는 고개, 구름이라도 쉬어 넘는 고개
 산지니* 수지니* 해동청(海東靑) 보라매*도 다 쉬어 넘는 ㉠
 고봉(高峰) 장성령(長城嶺) 고개,
 그 너머 님이 왔다 하면 ㉡나는 아니 한 번도 쉬어 넘어 가
 리라.
 - 작자 미상 -

(다)
 나무도 바위들도 없는 피에 ㉢매에 쫓긴 까투리 맘과
 대천(大川) 바다 한가운데 일친 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닳도 잃고 용충*도 끊고 돛대도 꺾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 천지(天地) 적막(寂寞) 까치놀* 떴는데 수적
 (水賊) 만난 도사공(都沙工)의 맘과
 엇그제 님 여원 ㉤내 말이야 어디가 갈다하리오.
 - 작자 미상 -

* 산지니: 산에서 자라 여러 해를 묵은 매.
 * 수지니: 사람의 손으로 길들인 매.
 * 보라매: 새끼를 잡아 길들여서 사냥에 쓰는 매.
 * 용충: 배의 돛을 올리거나 내리는 데 쓰는 줄.
 * 까치놀: 석양을 받은 먼 바다의 수평선에서 번득거리는 노을.

37. (가)~(다)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물에 의탁하여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 ② 과장된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절실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다.
 - ④ 부정적 상황도 인식의 전환을 통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나타내고 있다.

38. (가)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요사이 안부를 묻노니 어떠하시나요? 近來安否問如何
달 비친 사창(紗窓)에 저의 한이 많습니다. 月到紗窓妾恨多
꿈 속의 님에게 자취를 남기게 한다면 若使夢魂行有跡
문 앞의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걸. 門前石路半成沙
- 이옥봉, 「몽혼(夢魂)」 -

- ① (가)와 <보기>는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군.
- ② (가)와 <보기>는 상황을 가정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말하고 있군.
- ③ (가)의 '자취'와 <보기>의 '자취'는 화자의 마음이 임에게 전달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님의 집 창(窓)'과 <보기>의 '달 비친 사창(紗窓)'의 '창'은 임과의 만남을 돕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군.
- ⑤ (가)의 '석로(石路)라도 닳으리라'와 <보기>의 '돌길이 반쯤은 모래가 되었을 걸.'에서 '길'의 상태가 변할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 그리움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군.

39.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 ② ㉡: 입을 만나고자 하는 화자의 적극적 의지가 드러나 있다.
- ③ ㉢: 화자의 처지와 대조적인 소재로 화자의 슬픔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악화되는 상황의 열거를 통해 '도사공'의 심리적 압박이 고조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까투리', '도사공'과의 비교를 통해 화자의 암담한 심정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수능 완성 - 박인로, 「사제곡」 // 고2, 2016.11)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거수(居水)에 이러커든 거산(居山)이라 우연(偶然)하라
산방(山房)의 추만(秋晩)커늘 유희(幽懷)를 둘 디 업서
운길산(雲吉山) 돌길히 막디 집고 쉬여 올라
임의소요(任意逍遙)*하며 원학(猿鶴)을 벗을 삼아
교송(喬松)을 비기여 사우(四隅)*로 도라 보니
천공(天工)이 공교(工巧)하라 빛빛출 썸이느가
훤구릅 말근 너는 편편(片片)이 썸여 나라
노푸락 나지락 봉봉곡곡(峯峯谷谷)이 면면(面面)에 버러썸
든

서리친 신남기 봄꽃도곤 불거시니
금수병풍(錦繡屏風)을 첩첩(疊疊)이 둘너는 듯
천태만상(千態萬象)이 참람(僭濫)*하야 보이느다
힘 세이 다토면 내 분에 올라마는
금(禁)허리 업슬시 나도 두고 즐기노라
[C] 허물며 남산(南山) 느린 굶히 오곡(五穀)을 가초 심거
먹고 못 남아도 굶지나 아니허면
내 집의 내 밤이 그 맛시 엇더호노
[D] 감지봉양(甘旨奉養)*을 족(足)다사 흘가마는
오조함정(烏鳥含情)*을 뵈고야 말넛노라
사정(私情)이 이러하야 아직 물러나와신들
[E] 망극(罔極)호 성은(聖恩)을 어니 각(刻)에 이질넛고
견마미성(犬馬微誠)*은 백수(白首)에야 더욱 겁다
시시(時時)로 머리 드러 북신(北辰)을 바라보니
눈 모르는 눈물이 두 시뵈에 다 져느다
- 박인로, 「사제곡(莎堤曲)」 -

- * 임의소요(任意逍遙): 마음대로 거닐며 바람을 쏘임.
- * 사우(四隅): 사방.
- * 참람(僭濫): 제 분수를 넘어 방자스러움.
- * 굶다: 갖추다.
- * 감지봉양(甘旨奉養):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님을 봉양함.
- * 오조함정(烏鳥含情): 까마귀가 먹은 마음. 곧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
- * 견마미성(犬馬微誠): 개와 말이 충성스레 사람을 섬기듯이 신하가 임금님을 섬기려는 작은 정성.

(나)

농암(叢巖)에 올라 보니 노안(老眼)이 유명(猶明)* | 로다
인사(人事)이 변(變)호들 산천(山川)이잔 가질가
암전(巖前)에 모수(某水) 모구(某丘)*이 어제 본 듯 호예라
- 이현보, 「농암가(叢巖歌)」 -

- * 유명(猶明): 오히려 밝아짐.
- * 모수(某水) 모구(某丘): 아무개 물과 아무개 언덕.

(다)

그러다가 금년 가을에 상인(上人)*이 산에서 내려왔으므로,
내가 그를 보고는 너무 기뻐서 하루 종일 불들어 두었는데, 그
때 상인이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어 보여 주면서 말하기를,
“내가 나의 초당을 상죽(霜竹)이라고 이름하고는 육우(六又)

김비판(金秘判)에게 청하여 큰 글자를 써서 현판으로 걸었다. 앞으로 상죽에 대한 시가(詩歌)를 천신(薦紳)들 사이에서 구하려고 하니, 그대가 기문(記文)을 써주면 좋겠다.”

내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내긴 하였지만, 나를 초목에 비유한다면 저력(樗櫟)이나 포류(蒲柳)일 따름이니, 어떻게 감히 우리 상인의 초당에 기문을 쓸 수가 있겠는가. 비록 그렇긴 하지만 상인이 일단 나를 비루하게 여기지 않았고 보면, 내가 또 어떻게 들은 것을 가지고 고해 주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대저 대나무도 하나의 식물이다. 식물이 서리와 이슬을 만나면 급격하게 변해서 가지가 꺾여 부러지고 낙엽 저 떨어져서 더 이상 생기가 없어지고 만다. 하늘과 땅 사이를 채우고 있는 식물 모두가 이러한데도 오직 대나무만은 가지도 여전하고 잎도 여전한 가운데 홀로 우뚝 서서 향기를 내뿜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예로부터 운치 있는 사람들과 절개 있는 선비들 거의 대부분이 대나무를 사랑하였으며, 심지어는 차군(此君)으로 지목하는 사람이 나오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아, 사람의 속성을 살펴보면, 눈으로 색(色)을 취하고 코로 냄새를 취하고 귀로 소리를 취하고 입으로 맛을 취하고 팔과 다리로 편안함을 취하는 과정에서, 저 양심을 해치게 되는 것들이 어찌 식물이 서리와 이슬을 만나는 정도로만 그칠 뿐이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에서 이에 대해 피할 줄 아는 자가 드물기만 하다.

상인은 불자(佛者)이다. 따라서 소위 색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일념(一念)이 동요된 적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자기의 초당을 상죽(霜竹)이라고 명명하였고 보면, 이는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것일 뿐만이 아니요, 대개는 기운이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 구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다.

- 이승인, 「상죽헌기(霜竹軒記)」 -

* 상인(上人): 지혜와 덕을 갖추어 타인의 스승이 될 수 있는 고승.

34.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를 대비하여 표현 효과를 높이고 있다.
 - ②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친근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3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자족감이 드러나 있다.
 - ② (나)에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개선된다는 기대감이 드러나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에는 자연으로부터 받은 감흥이 드러나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에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외심이 드러나 있다.
 - ⑤ (가)와 (나)에는 모두 대상의 부재로 인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다.

3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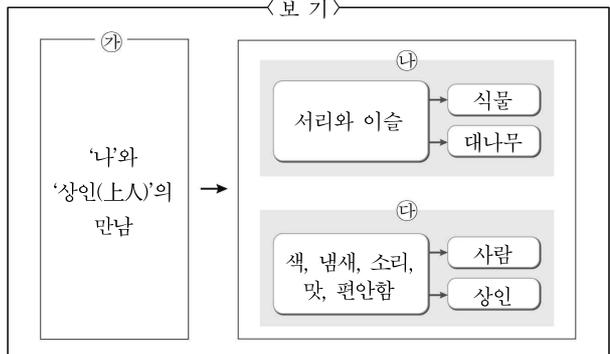
<보기>

「사제곡」은 박인로가 이덕형을 화자로 하여 그가 향촌인 ‘사제’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작품화한 것이다. 박인로의 시가에서 강호는 향촌으로 돌아온 사족(士族)이 은거하는 공간인 동시에, 그들이 현실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터전이다. 또한 성리학적 유자(儒者)에게 요구되는 자세인 충과 효를 실천하는 공간이다.

- ① [A]는 화자가 ‘사제’를 유자적 자세를 다짐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② [B]는 화자가 ‘사제’에 은거하여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③ [C]는 화자가 ‘사제’에서 현실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④ [D]는 화자가 ‘사제’에서 부모를 봉양하려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⑤ [E]는 화자가 ‘사제’에서도 충을 실천하고자 함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7. (다)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구조화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① ‘나’는 ㉠에서 ‘나’를 대하는 ‘상인’의 태도를 생각해 ‘상인’의 요구에 응하고 있다.
- ② ‘나’는 ㉡의 ‘대나무’가 ‘서리와 이슬’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③ ‘나’는 ㉡의 ‘상인’의 모습에서 얻은 깨달음을 ‘사람’에게 전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의 ‘대나무’가 ㉡의 ‘상인’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 ⑤ ‘나’는 ㉡의 ‘서리’가 ‘식물’을 해치는 것보다 ㉡의 ‘사람’이 ‘편안함’을 취하면서 양심을 해치게 되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능 특강 - 정극인, 「상춘곡」 // 고2, 2017.11)

[30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사(歌辭)는 두 마디씩 짝을 이루는 율문의 구조만 갖추면 내용은 무엇이든지 노래할 수 있었던 양식이다. 시조의 형식이 간결한 것에 비해 가사는 복잡한 체형을 두루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길어질 수 있었다. 그래서 시조를 길이가 짧다는 의미에서 '단가(短歌)'라고 부르던 것과 구별하여 가사는 '장가(長歌)'라고도 불렀다. 조선 시대의 가사는 보통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전기 가사와 17세기부터 19세기 전반까지의 후기 가사로 구분된다.

전기 가사는 대체로 사대부들에 의해 지어졌다. 관직에 있지 않은 사대부들은 자연에 묻혀 지내면서 자연에 대한 흥취나 자신들이 중요시 여기던 가치관을 가사를 통해 드러냈다. 그 구체적인 모습으로 안빈낙도(安貧樂道)를 표방하기도 했으며, 이러한 경향이 '강호시가(江湖詩歌)'라는 한 유형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강호시가는 강호의 삶을 표방하기 위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자연에서 느끼는 일체감을 드러냈다. 여기서 자연이라는 공간은 속세와의 대비에서 그 의미가 구체화된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경계로 하는 17세기 무렵부터의 후기 가사에 오면 몇 가지 변화가 생긴다. 작자층의 확대, 제재의 변화, 대상을 보는 시각의 다변화, 표현 방식의 다양화 등이 그것인데 이런 변화는 서로 밀접한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들이었다. 사대부로 제한되었던 가사의 작자층이 확대되자 다양한 관심사가 가사 작품으로 형상화되었고, 각각의 삶이 다른 만큼 대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건한 태도로 사물을 바라보고 형상화하던 데에서 나아가 풍자적이고 회화적인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표현하는 작품을 등장하게 하였고, 서민의 삶의 어려움이나 그들의 바람을 드러내는 작품을 등장하게 하기도 하였다. 또한 후기 가사는 체험한 일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것을 중시하고, 이념적인 삶보다 현실의 문제를 가사의 제재로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조선 전기와 후기의 사회를 구분해 주는 특징이기도 하다.

(나)

엇그제 거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꺾여 있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 중(細雨中)에 **프르**로도다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계위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아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룰소냐
 시비(柴扉)에 거러 보고 정자(亭子)에 안자 보니
 소요음영(逍遙吟詠)*하야 산일(山日)이 적적(寂寂)흔디
 한중진미(閑中眞味)를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중략)

송간 세로(松間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치 들고

봉두(峰頭)에 금피 올라 구름 소귀 안자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이 버러 잇니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재펴는 듯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홀샤
공명(功名)도 날 띄우고 부귀(富貴)도 날 띄우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엇던 벗이 잇스올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훗튼 혜음 아니 흐니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호들 엇지흐리

- 정극인, 「상춘곡」 -

- * 소요음영: 자유롭게 이리저리 슬슬 거닐며 나지막이 시를 읊조림.
- * 연하일휘: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이라는 뜻으로,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다)

조상 덕에 흐는 일이 읍중(邑中) 구실 첫째로다
 드러그면 **좌수별감**(座首別監)* 나그쳐는 풍헌감관(風憲感官)
 [A] 유스장의(有司掌儀)*에 그치면 체면 보와 사양터니
 애슬프다 내 시절의 원수인(怨讐人)의 모해(謀害)로서
 군스 강정(降定)* 되단 말그 내 흐 몸이 허러 나니
 좌우전후 일그 친척 촌촌 충군(充軍)* 되거고야
 [B] 제사 받들 이니 몸은 홀일업시 밋와 있고
 시름 업슨 친족들은 자취업시 도망하고
 여러 스름 모든 신역(身役)* 내 흐 몸의 모두 무니
 흐 몸 신역 삼냥오전(三兩五錢) 돈피(鎊皮)* 두 장 의법이라
 열두 스름 업슨 구실 합쳐 보면 사십육냥(四十六兩)
 해마다 맞춰 무니 석송(石崇)*인들 당홀소냐
 [C] 약간 농스 전폐하고 치삼(採蓼)*하려 입산(入山)하여
 허항영(虛項嶺)* 보티슨(寶泰山)을 들고 돌아 촌즈보니
 인슴쌍은 전혀 업고 오갈피엿 날 속인다
 홀일업시 공반(空返)하여 팔구월 고추바람
 안고 도라 **입산**(入山)하여 돈피 사냥 하러 흐고
 빅두산(白頭山) 등의 지고 강 아래로 내려 가서
 [D] 찌리 깎거 누디 치고 일갈나무 모담불 놓고
 흐느님께 축수하며 손신(山神)님께 발원하여
 물치출*을 갖춰 쫓고 스망*일기 원하되
 니 정성이 부족흔지 스망실이 아니 붓니
 빈손으로 도라서니 삼지연(三池淵)이 잘 춤이라
 입동(立冬) 지난 삼일(三日) 후에 밤새 눈이 사뭇 오니
 다섯 자 깊이 벌써 너머 사오보(四五步)를 못 움길니
 식량 다하고 옷 얇으니 압희 근심 다 떨치고
 [E] 목숨 슬려 육심하여 죽기 살기 길을 허여
 인가처를 촌즈오니 검천(劍川) 거러 첫목이라
 첫닭 소리 이윽흐고 인가 적적 홀잡일네
 집을 촌즈 드러가니 혼비백산 반주검이
 말 못하고 너머지니 더운 구들 아랫목의
 송장갓치 누엇다가 정신을 차리고
 두 발 곱흠 구며보니 열 그락이 간 더 업니

- 작자 미상, 「잡민가」 -

- * 좌수별감: 향청의 우두머리와 그에 버금가는 자리에 있는 사람.
- * 유스장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과 예식에 관한 일을 하는 사람.
- * 군스 강정: 군사의 계급으로 강등됨.
- * 충군: 모자란 군역을 채움.
- * 신역: 몸으로 치르는 노역.
- * 돈피: 담배 종류 중 물의 모피를 통틀어 이르는 말.
- * 석승: 중국 진나라 때의 부자 이름.
- * 직삼: 인삼을 껌.
- * 허항영: 함남 해산군과 함북 무산군 사이에 있는 고개.
- * 물지출: 물과 채와 줄.
- * 스망: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 운수.

30.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사는 복잡한 내용을 두루 표현할 수 있는 양식이다.
- ② 가사는 길이가 늘어나는 것이 자유로운 시가 갈래이다.
- ③ 전기 가사와 후기 가사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 ④ 가사는 두 마디씩 짝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장가라고도 불린다.
- ⑤ 가사의 작자층이 확대된 것과 표현 방식이 다양해진 것은 서로 관련이 있다.

31. (가)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지내면서 '도화행화'를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지만, (다)의 화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인습'을 생존을 위한 대상으로 여기고 있군.
- ② (나)의 '세우'는 봄을 맞이한 화자의 흥취를 돋우어 주는 역할을 하지만, (다)의 '눈'은 서민으로서 화자가 겪는 삶의 고통을 심화하는 역할을 하는군.
- ③ (나)는 화자가 '봉두'에 올라서 바라본 자연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고 있지만, (다)는 화자가 '입습'하여 체험한 일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군.
- ④ (나)의 '공명'은 자연과 대비되는 속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태도를 드러내지만, (다)의 '좌수별감'은 사대부들의 경건한 삶의 자세에 대한 화자의 풍자적 태도를 드러내는군.
- ⑤ (나)는 '단표누항'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그의 가치관을 보여 주지만, (다)는 화자가 '빈손'의 상황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 화자에게 닥친 현실의 문제를 보여 주는군.

32. (나), (다)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애상적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 ③ 대화의 형식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의 긍정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의성어를 사용하여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33. <보기>를 바탕으로 (다)의 [A]~[E]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갑민가>의 '갑민'은 함경도 갑산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갑산은 변방이자 오지라는 특성 때문에 유배지로 유명한 지역이다. 이 작품처럼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은 독자에게 사실감을 부여하는데, 그 지역에서 행하는 민속을 드러내어 사실감을 높이기도 한다. 한편 이 작품이 창작된 시기에는 신분 이동이 많이 발생하였고,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친족에게 세금을 대신 물리는 족징(族徵)의 폐해가 심각했는데, 이 작품에는 이러한 시대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

- ① [A]: 갑민의 처지가 바뀌게 된 원인이 제시되어 있군.
- ② [B]: 갑민이 족징을 당하게 되는 과정이 드러나 있군.
- ③ [C]: 실제 지명을 언급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고 있군.
- ④ [D]: 갑산 지역에서 돈피 사냥에 앞서 행하던 민속을 짐작할 수 있군.
- ⑤ [E]: 갑민이 유배를 가는 길에서 겪은 시련을 엿볼 수 있군.

(수능 특강 - 이현보, 「어부단가」 // 고3, 2014.10 B형)

[43 ~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 뚝에 시름업스니 어부(漁父)의 생애(生涯)로다
 일엽편주(一葉扁舟)를 만경파(萬頃波)에 띄워두고
 인세(人世)를 다 니켓거니 날 가는 주를 알라
 <제1수>

구버는 천십녹수(千尋綠水) 도라보니 ㉠ 만첩청산(萬疊靑山)
 십장홍진(十丈紅塵)이 언매나 ㉡랬는고
 강호(江湖)에 월백(月白)헝거든 더욱 무심(無心)헝애라
 <제2수>

청하(靑荷)*에 비불 대고 녹류(綠柳)에 고기 썬어
 노적화총(蘆荻花叢)*에 비 띠야두고
 일반청의미(一般淸意味)*를 어니 부니 아라실가
 <제3수>

산두(山頭)에 한운(閑雲)이 기(起)헝고 수중(水中)에 백구(白鷗) | 비(飛)이라
 무심(無心)코 다정(多情)헝니 이 두 거시로다
 일생(一生)에 시르를 닛고 너를 조차 노로리라
 <제4수>

장안(長安)을 도라보니 북궐(北闕)이 천리(千里)로다
 어주(漁舟)*에 누어신들 니즌 스킨 이시라
 두어라 내 시름 아니라 제세현(濟世賢)*이 업스라
 <제5수>
 - 이현보, 「어부 단가」 -

* 청하: 푸른 연잎.
 * 노적화총: 갈대와 물억새의 덩불.
 * 일반청의미: 자연으로 인해 순수해진 내면.
 * 어주: 낚시질할 때 쓰는 조그만 배.
 * 제세현: 나라를 구제할 현명한 선비.

43. 윗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식을 통해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영탄의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현보는 만년에 혼탁한 정계(政界)에 싫증을 느껴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여생을 보냈다. 그는 자연을 즐기며 시작(詩作)에 힘썼으며, 고려 때부터 전해지던 「어부가」를 「어부 단가」로 개작하기도 하였다. 이현보는 이 작품을 통하여 유유자적하는 삶과 우국의 심정을 형상화하였다.

- ① '어부의 생애'는 귀향 후의 유유자적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십장홍진'은 혼탁한 정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한운'과 '백구'는 작가가 즐기는 자연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니즌 스킨 이시라'는 사직 한 후에도 우국의 심정을 지녔음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내 시름'은 시작(詩作)에 따르는 괴로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45. 윗글의 ㉠과 <보기>의 ㉡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몹그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식헝고
 비 미여라 비 미여라
 ㉠ 머흔 구를 혼(恨)티 마라 세상(世上)을 ㉡리온다
 지국총(至矧恫) 지국총(至矧恫) 어스와(於思臥)
 파랑성(波浪聲)*을 염(厭)티 마라 단훤(塵喧)*을 막는또다
 - 윤선도, 「어부사시사」 -

* 파랑성: 물결 소리.
 * 단훤: 속세의 시끄러움.

- ① ㉠과 ㉡는 모두 역동적인 느낌을 강화하고 있다.
- ② ㉠과 ㉡는 모두 화자가 도달해야 할 도덕적 가치를 상징하고 있다.
- ③ ㉠과 ㉡는 모두 화자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공간을 차단하고 있다.
- ④ ㉠은 감흥을 자아내고 있고, ㉡는 향수를 유발하고 있다.
- ⑤ ㉠은 공간적 배경을, ㉡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주고 있다.

(수능 특강 - 정극인, 「상춘곡」 // 고3, 2015.03 B형)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① 홍진(紅塵)에 못친 분네 이 내 생애(生涯) 엇더하고
 넷 사람 풍류(風流)를 미출가 못 미출가
 천지간(天地間) 남자(男子) 몸이 날만흔 이 하건마는
 산림(山林)에 못쳐 이서 지락(至樂)을 맛들 것가
수간모옥(數間茅屋)* 을 벽계수(碧溪水) 앞피 두고
 송죽(松竹) 울울리(鬱鬱裏)*에 풍월주인(風月主人) 되어서라
 엇그제 겨울 지나 새봄이 도라오니
 도화행화(桃花杏花)는 석양리(夕陽裏)에 뛰여 잇고
 녹양방초(綠楊芳草)는 세우중(細雨中)에 프르도다
 칼로 돌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헛스롭다
 ②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春氣)를 못내 게워
 소리마다 교태(嬌態)로다
 물이일체(物我一體)어니 흥(興)이이 다를소나

< 중략 >

준중(樽中)이 뷔엇거든 날드려 알외여라
 소동(小童) 아히드려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히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야 시냇그의 호자 안자
 ③ 명사(明沙) 조흔 물에 잔 시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써오느니 도화(桃花) | 로다
무릉(武陵)이 갓잡도다 | 저 미 이 낀 거이고

- 정극인, 「상춘곡」 -

(나)

광영지(光影池)에서 서쪽으로 화살 한 번 쏘 만한 거리에 줄지어 있는 소나무와 어지러운 나무들을 지나가면 와룡폭포가 있다.

폭포의 바닥은 다 돌이다. 돌은 난가대(欄柯臺)에서부터 일직선으로 퍼져 와룡담에 이르러 그쳤다. 그 사이는 백여 보 정도이다. 그 돌의 빛은 꽤 흰데 형체가 비록 누웠기는 하나 위쪽이 약간 높고 차례로 점차 낮아져서 손바닥을 옆으로 드리운 것 같다.

폭포는 명덕동(明德洞)에서부터 시작하여 흘러나온다. 한 갈래는 남쪽으로, 한 갈래는 서쪽으로 흐르다가 돌에 이르러 합류하는데, 화살처럼 빠르고 물병을 지붕에 거꾸로 얹어 놓은 것처럼 급히 쏟아진다.

물이 흘러가다가 길을 가로막고 누워 있는 돌을 만나게 되면 떨어져 내리는 기세가 비로소 급하게 된다. 돌은 물의 맹렬한 두들김을 견디지 못하여 가운데가 호박같이 되었다. 구슬이 튀고 눈이 불 끓듯 세차게 일어난다.

그 넘쳐흐르는 나머지가 흩어져 연못이 되었으니 흔들리며 움직여 맑고 깨끗하여 손을 씻어도 좋고 이를 닦아도 좋으

며 빨래를 할 수도 있다. 물과 돌이 이에 이르러 비로소 공을 들인 보람을 나타낸 것이다.

④ 여름철에 비가 크게 내리면 폭포는 부르짖고 성냄이 천둥벼락같다. 그 기세는 돌을 걷어 가지고 달아날 것 같다. 뿔여달리는 물방울이 사방으로 날아올라 소나무 가지 끝에 흰 무지개 같은 무리가 가끔씩 있어 매우 기이하고 장관이다.

옛날에는 양쪽 언덕에 걸쳐 정자가 있어 물이 난간 아래로 흘렀는데, 이것이 거센 물결을 견디지 못하여 끝내 무너진 지가 여러 해 되었다. ⑤ 지금도 남은 주춧돌 너댓 개가 기울어지거나 혹은 선 채로 있어서 오히려 옛터를 알아볼 수 있다.

나는 산에 살면서 할 일이 없다. 늦게 밥을 먹고 나면 커다란 샷갓을 쓰고 세로 지은 학창의를 입고 막대기를 끌며 천천히 걸어간다. 연못가의 오래된 나무 밑에 자리를 잡고 앉아 『도덕경』 몇 장을 읽는다.

어쩌다가 팔을 베게 삼아 늘어지게 한잠 자노라면 산에 해가 기우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잠이 어슴푸레 깨어서 나무 사이의 하늘을 쳐다보면 그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하늘빛이 보인다. 꽤요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귀에 가득하고, 저녁 새가 가지들 돌며 날아 지저귀는 것이 들릴 뿐이다.

이때 나의 가슴속엔 한 가닥의 생각도 없다. 마음이 화락하여 내가 나를 잊는다. 어찌 연못과 같은 사물에 노니는 것이겠는가. ① 나는 하늘에 노니는 것이지, 세속의 사물에 노니는 것이 아니다.

- 체제공, 「와룡폭포기」 -

- * 수간모옥: 몇 칸 초가집.
- * 울울리: 우거진 숲.
- * 미음완보: 작은 소리로 읊으며 천천히 걸음.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여 자기반성의 계기로 삼고 있다.
- ③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여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④ 대상을 관찰하여 양면적 속성을 포착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 과정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35. ① ~ 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①: 청자에게 묻는 방식을 통해 화자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② ②: 화자의 정서와 조응하는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흥취를 환기하고 있다.
- ③ ③: 시냇물을 바라보며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④ ④: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⑤ ⑤: 과거를 회상하며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를 드러내고 있다.

36. <보기>의 관점에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자연미를 체험하는 방식에는 '유거(幽居)'와 '탐승(探勝)'이 있다. 유거는 작가가 은거하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 주위를 노닐며 즐기는 방식이고, 탐승은 작가가 거주지에서 멀리 떠나 여러 명승지를 거점으로 삼아 낯선 곳을 기행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유거가 나타난 작품들은 거주지나 그 주위의 자연을 제시하면서 일상의 생활 체험을 보여 주는데, 거주지 주위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유거는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므로 심리적 만족감을 동반한다. 「상춘곡」과 「와룡폭포기」는 이와 같은 유거를 보여 주는 작품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가)의 '수간모옥'은 작가가 유거를 체험하는 거주지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무릉이 잣갑도다'는 작가가 유거 속에서 거주지 주위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인식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늘어지게 한잠 자노라면'은 작가가 유거를 통해, 익숙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저 밭'와 (나)의 '연못'은 작가가 낯선 곳을 기행하기 위해 거점으로 삼은 명승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흥(興)이이 다를소냐'와 (나)의 '마음이 화락하여 내가 나를 잊는다.'는 작가가 유거를 통해 느낀 심리적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7.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1779년 2월 채제공은 명덕동으로 이사하였다. 갑작스럽게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그는 이곳에서 산수를 즐기며 여유와 안정을 찾았다. 채제공은 와룡폭포 근처의 '난가대'를 특히 좋아했는데, '난가'가 신선의 땅이라는 뜻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그는 신선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의 복장인 '학창'의를 입었고, 자주 읽으면 신선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 『도덕경』을 탐독했다.

- ① 신선의 삶보다 자신의 삶이 낫다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 준다.
- ② 신선의 품격을 추구하다가 봉착하게 된 자신의 한계를 보여 준다.
- ③ 신선의 땅에서 역설적으로 깨닫게 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여 준다.
- ④ 신선의 삶을 동경하며 생활하다가 느끼게 된 정신적 경지를 보여 준다.
- ⑤ 신선의 생활과 세속의 생활 사이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기 위안을 보여 준다.

(수능 특강 - 안조원, 「만언사」 // 고3, 2015.04 B형)

[31 ~ 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마도 꿈이로다 일마다 꿈이로다
동냥도 꿈이로다 등짐도 꿈이로다
 뒤에서 당기는 듯 앞에서 밀치는 듯
 아무리 구브려도 자빠지니 어이 할꼬
 멀지 않은 주인집을 친신만고(千辛萬苦) 찾아오니
 존전(尊前)의 출입인가 한출침배(汗出沾背)* 무슨 일고
 저 주인의 거동 보쇼 코웃음에 비웃음에
양반도 하릴없다 동냥도 하시느고
 귀인도 속절없네 등짐도 지시는고
 밤 짠 노릇 하오시니 저녁밥은 많이 먹쇼
 네 웃음도 듣기 싫고 많은 밥도 먹기 싫다
 동냥도 한번이지 빌긴들 매양일까
 평생에 처음이요 다시 못할 일이로다
 차라리 굶을지언정 이 노릇은 못하리라
 무슨 일을 하잔 말고 신 삼기나 하오리라
 짚 한 단 추려놓고 신날부터 꼬아보니
 종이노*도 못 꼬거든 **짚신날**을 어찌 꼬리
 다만 한 발 못 꼬아서 **손가락**이 부르트리
 하릴없이 내어놓고 자리노*를 배워 꼬니
 천수만환(千愁萬恨)* 이 내 마음 노 꼬기에 부치리라
 날이 가고 밤이 새니 어느 시절 되었는고
 오동이 엽락(葉落)하고 금풍(金風)이 소슬(蕭瑟)하니
 만산초목(萬山草木)이 잎잎이 추성(秋聲)이라
 새벽서리 지는 달에 ㉠ **외기리기** 슬피 울 제
 잠 없는 내 먼저 듣고 임 생각이 새로워라
 보고지고 보고지고 **임금** 보고지고
 나래 돌친 **학(鶴)**이 되어 날아가서 보고지고
 만리장천(萬里長天) 구름 되어 불려가서 보고지고
 오동추야(梧桐秋夜) 달이 되어 비추어나 보고지고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 * 한출침배(汗出沾背) : 땀이 나와 등을 적심.
- * 종이노 : 종이를 꼬아 만든 끈.
- * 자리노 : 명석 등을 만들기 위해 짚 등을 꼬는 것.
- * 천수만환(千愁萬恨) : 이것저것 슬피하며 원망함.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의 방법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영탄적 표현을 통해 고조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계절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32~33] 윗글과 <보기1>, <보기2>를 바탕으로 32번과 3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1〉

윗글은 화자의 독백과 특정 인물과의 ㉠ 대화를 바탕으로 유배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화자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 유배지에서의 고충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기도 하는 한편, 유배지에서 벗어나고자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2>는 윗글에 대한 화답형식으로 지어진 작품으로, ㉡ 윗글에서의 고통 받는 화자를 청자로 설정하여 현실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점을 ㉢ 대화 형식을 빌려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보 기 2〉

이보소 손님내야 설운 말씀 그만하고
광부(狂夫)의 말이라도 성인(聖人)이 가리시니
시골말이 무식하나 ㉡의 말씀 들어보소
천지인간(天地人間) 큰 기틀에 존비귀천(尊卑貴賤) 짜여내어
하루 한 때 근심 없이 모두 즐거움이 뉘 있을꼬
하늘에도 변화 있어 일월식(日月蝕)을 되시옵고
바다에도 진퇴(進退)있어 밀물과 썰물이 있사오니
춘추추동 사시절(四時節)에 한서온냉(寒暑溫冷) 돌아가니
부귀엔들 풀칠하여 몸에 붙여 두었으며
공명(功名)엔들 끈을 달아 옆에 채워 있을손가
손님 팔자 좋다 한들 한결같이 다 좋으며
번화(繁華)하다 고생한들 저런 고생 계속 할가
화려하게 치장한 경대부(卿大夫) 높은 신분 귀공자도
섬 고생 다 지내고 천은(天恩)입어 올라갔네

- 안조원, 「만언사담(萬言詞答)」 -

32. <보기1>을 참고하여 윗글과 <보기2>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윗글에서 '동냥'을 해야 하는 화자의 처지는 <보기2>의 '설운 말씀'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윗글에서 '짚신날'을 끄는 행위는 <보기2>의 '고생'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윗글에서 '손가락'이 부르르드도록 일하는 모습은 <보기2>의 '변화'를 겪은 화자가 삶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윗글에서 '임금'을 보고 싶은 마음은 <보기2>의 '천은(天恩)'을 통해 해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윗글에서 '학'이 되어 날아가고자 함은 <보기2>의 '손님'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고 볼 수 있겠군.

33. <보기1>의 ㉠ ~ ㉢를 고려하여 [A]의 양반과 <보기2>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양반은 청자를 훈계하고 있고, 나 는 청자의 힘겨운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
- ② 양반은 청자의 태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고, 나 는 청자를 위로하고 있다.
- ③ 양반은 청자를 설득하고 있고, 나 는 청자에게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양반과 나 모두 미래의 상황을 언급하며 청자의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 ⑤ 양반과 나 모두 현학적 표현을 사용하여 청자의 언행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

34.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기능을 한다.
- ②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 ③ 특정 대상을 떠올리는 매개물의 기능을 한다.
- ④ 외부 대상과의 단절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
- ⑤ 삶의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수능 특강 - 박인로, 「누항사」 // 고3, 2016.07)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빈천(貧賤)을 팔려고 권문(權門)*에 들어가니
덤 없는 흥정을 누가 먼저 하자고 하겠는가

강산(江山)과 풍월(風月)을 달라하니 그건 그리 못하리

- 조찬한 -

(나)

어리석고 어수룩하기로 나보다 더한 이 없다

길흉화복(吉凶禍福)을 하늘에 맡겨 두고

누항(陋巷)* 깊은 곳에 초막(草幕)을 지어 두고

풍조우석(風朝雨夕)*에 썩은 짚을 섶으로 삼아

㉠서 흙 밥 닷 흙 죽(粥)에 연기(煙氣)도 자욱하다

설 테운 승냥으로 빈 배 속일 뿐이로다

내 삶이 이러한들 ㉡장부(丈夫) 뜻을 바꿀런가

안빈(安貧) 일념(一念)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뜻한 바대로 살려 하니 갈수록 어긋난다

가을이 부족(不足)한데 봄이라 넉넉하며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瓶)이라고 담겼으랴

빈곤(貧困)한 인생(人生)이 천지 간(天地間)에 나뿐이라

배고픔과 추위로 피로위도 **일단심(一丹心)**을 잊을런가 의(義)를 위해 목숨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자루와 주머니에 줌증이 모아 넣고 전쟁 오 년에 감사심(敢死心)*을 가져 있어 주검 밟고 피를 건너 ㉠ **몇 백 전(戰)**을 지냈던고 내 몸이 여유 있어 일가(一家)를 돌아보라 수업이 긴 노비는 노주분(奴主分)*을 잊었거든 ㉡ 불이 왔다 알리는 걸 어느 사이 생각하리 경당문노(耕當問奴)*인들 누구에게 물올런고 손수 농사짓기가 ㉢ **내 분(分)인** 줄 알리리다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

- * 권문: '권문세가'의 준말. 권세가 있는 집안.
- * 누항: 가난한 사람이 사는 곳, 누추한 곳을 이룸.
- * 풍조우석: 바람 부는 아침과 비 오는 저녁.
- * 감사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 * 노주분: 노비와 주인의 구분.
- * 경당문노: 밭 갈기는 마땅히 노비에게 물어야 함.

37.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청각적 심상을 통해 애상적인 분위기를 드러낸다.
- ② (가)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한다.
- ③ (나)에서는 의성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넘치게 표현한다.
- ④ (가), (나)에서는 모두 감정 이입을 통해 대상과의 친밀감을 심화한다.
- ⑤ (가), (나)에서는 모두 설의적 표현을 통해 구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38.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소재
- ② ㉡: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화자가 지키려는 뜻
- ③ ㉢: 화자가 죽음을 무릅쓰고 용감히 싸웠던 전쟁
- ④ ㉣: 한해의 농사를 짓기 시작해야 할 때
- ⑤ ㉠: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을 배려하는 넉넉한 태도

39.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조선 시대에 여러 내우외환을 겪으면서 나라의 사정은 어려워지고 권력과 부귀를 지니지 못한 선비들도 삶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그들은 현실적인 삶의 문제와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삶 사이에서 갈등했다. 조찬환의 시조와 박인로의 「누항사」에는 선비들이 현실적이고민 속에서도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① (가)의 '빈천'은 선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② (가)의 화자가 '강산과 풍월'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에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선비로서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는 태도를 엿볼 수 있군.
- ③ (나)의 '누항'은 가난한 현실로 인해 선비로서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 드러나 있는 공간이군.
- ④ (나)의 화자가 '빈곤한 인생' 속에서도 '일단심'을 잊지 않겠다는 모습에는 선비로서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군.
- ⑤ (가)의 화자가 '권문'을 찾는 모습과 (나)의 '안빈 일념'을 적게 지닌 화자의 모습을 통해 현실과 타협하며 살았던 과거의 태도를 반성하는 선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군.

(수능 특강 - 안조원, 「만언사」 // 고3, 2017.07)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배(流配) 시가는 유배지로 가는 여정이나 유배지에서 느끼고 경험한 바를 소재로 하여 창작된 시가들을 총칭한다. 유배 시가는 고려 시대 정서의 「정과정곡(鄭瓜亭曲)」을 시조로 하여, 조선 시대에 들어와 시조나 가사 등의 다양한 문학양식으로 활발하게 창작되었다. 시조는 초·중·종 3장의 정형화된 형식 안에 유배객의 삶과 정서를 간결하게 응축해서 전달할 수 있었다. 한편 가사는 연속체(連續體)로, 길이의 조절이 자유로웠기에 유배지에서의 삶과 정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었다.

정치적 분쟁으로 인한 유배객이 많았던 조선 시대의 유배 시기에는 정적(政敵)에 대한 원망, 결백의 호소, 정계 복귀에 대한 소망 등이 주로 표현되었다. 또한 정치적 유배객들은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을 드러내며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유교 이념을 굳건히 지키는 태도를 보였다. 조선 광해군 때, 윤선도가 이이첨의 횡포를 규탄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이이첨 일파의 모함을 받아 유배되어 쓴 연시조 「견회요(遣懷謠)」에 이러한 모습이

[A] 잘 드러나 있다. 한편, 정치적 유배객들 중에는 현실에서 소외된 자신의 처지를 달래기 위해 자연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탈속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유배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적인 잘못에 의한 경우도 있다. 개인적 잘못으로 인한 유배객은 정적에 대해 원망하거나 임금에게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데 중점을 두기보다는 자신의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후회,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러운 삶과 사실적 체험을 서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정조 때, 안조원이 공무상의 개인 비리로 유배되어 쓴 가사 「만언사(萬言詞)」가 그러하다.

(나)

내 일 망녕된 줄을 내라 하여 모를쏨가
이 마음 어리기도 임 위한 탓이로세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임이 해여 보소서 <제2수>

㉠ 추성(楸城) 진호루(鎭胡樓) 맞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므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임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 아버지 그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아버지 그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괴 불효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

(다)

남방 염천(南方炎天)*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
땀이 배고 때가 올라 굴뚝 막은 덕석인가
덥고 겹기 다 바리고 내암새를 어이하리
어와 내 일이야 가련히도 되었고나
손잡고 반기는 집 내 아니 가웁더니
등 밀어 내치는 집 구차히 빌어 있어
㉢ 옥식 진찬(玉食珍饈) 어데 가고 맥반 염장(麥飯鹽藏)* 데
하오며
금의 화복(錦衣華服) 어데 가고 현순백결(懸鵝百結) 하였는
고
이 몸이 살았는가 죽어서 귀신인가
말하니 살았으나 모양은 귀신일다

㉣ 한숨 끝에 눈물 나고 눈물 끝에 한숨이라
도로혀 생각하니 어이없어 웃음 난다
이 모양이 무슴 일고 미친 사람 되었고나
㉤ 어와 보리가을 되었는데 전산 후산에 황금빛이로다
남풍은 때때 불어 보리 물결 치는고나
지계를 벗어 놓고 전간(田間)에 굽닐면서
한가히 베는 농부 물노라 저 농부야
밥 우회 보리술을 몇 그릇 먹었느냐
청풍에 취한 얼굴 깨연들 무엇하리
연년(年年)이 풍년 드니 해마다 보리 베어
마당에 두드려서 방아에 썰어 내어
일분(一分)은 밥쌀 하고 일분(一分)은 술쌀 하여
밥 먹어 배부르고 술 먹어 취한 후에
함포고복(含哺鼓腹)하여 격양가(擊壤歌)*를 부르나니
농부의 저런 흥미 이런 줄 알았던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
백운(白雲)이 즐거운 줄 청운(靑雲)이 알았으면
탐화봉접(探花蜂蝶)*이 그물에 걸렸으라

- 안조원, 「만언사(萬言詞)」 -

* 남방 염천: 남쪽 지방의 몹시 더운 날씨.

* 맥반 염장: 보리밥과 소금장.

* 격양가: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 탐화봉접: 꽃을 탐하는 벌과 나비.

43.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사는 길이의 조절이 자유로웠기 때문에 유배지에서의 삶과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 ② 유배 시가가 조선 시대에 처음 창작되어 당대에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은 정치적 배경과 관련이 깊다.
- ③ 유배 시가는 유배객으로서의 일상과 유배지에서 보고 들은 바를 왕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시가를 말한다.
- ④ 시조는 3장의 정형화된 형식을 따랐기 때문에 유배지에서의 정서보다는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 ⑤ 정계에 복귀하고자 하는 유배객의 소망은 임금에 대한 충정보다는 탈속적 세계에 대한 지향으로 표현되었다.

4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 대조적 시어를 사용하여 현재의 궁핍한 삶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가 자신의 처지에서 느끼는 한스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⑤ ㉤: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 자신의 성과에 대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45. [A]를 참고하여 (나), (다)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나)의 '제3수'에는 자연에 은거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군.
- ② (나)의 '제5수'에는 임금에 대한 변함없는 충정이 효와 관련 하여 담겨 있군.
- ③ (다)의 '남방 염천 찌는 날에 빨지 못한 누비바지'에서, 유배지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유배객의 사실적 체험이 나타나는 군.
- ④ (다)의 '공명을 탐치 말고 농사를 힘쓸 것을'에서, 화자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다)의 '탐화봉집이 그물에 걸렸으랴'에서 개인의 잘못에 의한 유배를 그물에 걸린 것으로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군.

(수능 특강 - 작자 미상, 「덴동어미화전가」 // 고3, 2017.10) [22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삼월 삼짇날, 청명절 등에 부녀자들은 인근 산천을 찾아가 화전을 만들어 먹으면서 가사를 낭송하며 하루를 즐겼다. 화전가는 이때 지은 규방 가사로서 현장에서 창작되거나 집에 돌아간 후 지어지기도 했다. 때로는 남편이 지어 준 글을 가져 오거나 미리 지어 오기도 했다. 화전가는 문중에 소통되면서 문답 형식의 화전가를 낳기도 했는데, 이를 통해 사람들은 흥취를 공유하거나 가문의 결속을 다지기도 했다. 화전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을 보인다. 봄의 잔미, 화전놀이 공론과 택일, 통문, 허락, 경비 추렴, 화전놀이 출발, 도착 후 화전놀이, 재회의 기약, 이별, 귀가와 발문이 이어진다. 그중 화전놀이의 내용으로는 '내칙' 같은 교양물을 읊는 풍월 놀이, 부녀자의 신세 한탄, 놀이에 대한 감흥 등을 들 수 있다. [A]는 화전가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A] 방춘삼월 좋은 가절 군생지물 자랑하다
 생기로운 꽃다운 풀 푸릇푸릇 싹이 돋고
 향기로운 두견화는 불긋불긋 송이 핀다
 버들막에 ㉠ 피끄리는 벼를 찾아 날아들고
 수풀 사이 노래하고 꽃나비 춤을 춘다
 때는 좋다 벗님네야 내 말씀 들어 보소
 이와 같이 좋은 시절 엇지 그리 허송하랴
 (중략)

일년일차 화전놀음 여자놀음 이뿐일세
 하루이틀 물림 받고 하로 물림 여호리라
 무정풍우 밤사이에 앓가울사 꽃이 지면
 꽃을 찾아 화전놀음 무슨 흥미 있으리오
 갑자을축 택일은 많으나 천기를 살펴보니
 일구풍화 오늘같이 대동대길 합당하다

일반적으로 화전가에는 화전놀이를 통한 상춘(賞春)의 흥취와 함께, 고달픈 삶을 살았던 여인들의 한스러운 심정과 현실의 굴레에서 하루만이라도 벗어나고 싶어 했던 부녀자들의 염원이 잘 드러나 있다. 한편 화전가 중에서 독특한 구성

으로 주목을 받는 「덴동어미 화전가」는 '외부 이야기' 안에 덴동어미의 일생담이 담긴 '내부 이야기'가 포함된 액자식 구성을 띤다. '외부 이야기'는 대체로 화전가의 일반적인 구성을 따르고, '내부 이야기'는 상부(喪夫)와 개가(改嫁)를 반복하는 비극적인 삶을 산 덴동어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나)

어떤 부인은 글 용해서 내칙 편을 외워내고
 어떤 부인은 흥이 나서 칠월 편을 노래하고
 어떤 부인은 목성 좋아 화전가를 잘도 보네
 그중에도 덴동어미 멋나게도 잘도 놀아
 춤도 추며 노래도 하니 웃음소리 낭자한데
 그중에도 청춘과녀 눈물 콧물 피뚝하다
한 부인이 이른 말이 좋은 풍경 좋은 놀음에
 무슨 근심 대단해서 낙루한심 웬일이오
 나건으로 눈물 닦고 내 사정을 들어보소

[B] 열네 살에 시집을 때 청실홍실 늘인 인경
 원불상리 맹세하고 백 년이나 살았더니
 겨우 삼 년 동거하고 영결총천 이별하니
 임은 겨우 십육이요 나는 겨우 십칠이라
 선풍도골 우리 낭군 어느 때나 다시 볼꼬
 방정맞고 가련하지 애고애고 답답하다

[C] 십육 세 요사 임뿐이요 십칠 세 과부 나뿐이지
 삼사 년을 지냈으나 마음에는 안 죽었네
 이웃 사람 지나가도 서방님이 오시는가
 새소리만 귀에 오면 서방님이 말하는가
 그 얼굴이 눈에 삼삼 그 말소리 귀에 쟁쟁
 탐탐하면 우리 낭군 자나깨나 잇을쏜가
 잠이나 잘 오면 꿈에나 만나지만

[D] 잠이 와야 꿈을 꾸지 꿈을 꾸야 임을 보지
 간밤에야 꿈을 꾸니 정든 임을 잠깐 만나
 만단정담을 다하겠더니 일장설화를 채 못하여
 ㉡ 피끄리 소리 깨달으니 임은 정녕 간 곳 없고
 촛불만 경경불멸하니 아까 울던 저놈의 새가
 자네는 듣고 좋다 하되 나와 백 년 원수로세
 어디 가서 못 울어서 구태여 내 단잠 깨우는고

정정한 마음 둘 데 없어 이리저리 재던 차에
화전놀음이 좋다 하기에 심회를 조금 풀까 하고
 자네를 따라 참여하니 축치감창뿐이로세
 보나니 족족 눈물이요 듣나니 족족 한심일세
천하 만물이 짝이 있건만 나는 어찌 짝이 없나
 새소리 들어도 회심하고 꽃핀 걸 보아도 비창한데
 애고 답답 내 팔자야 어찌하여야 좋을거나
 가자 하니 말 아니요 아니 가고는 어찌할꼬

덴동어미 듣다가서 썩 나서며 하는 말이
 가지 마오 가지 마오 제발 적선 가지 말게
 팔자 한탄 없을까마는 가단 말이 웬 말이오
 잘 만나도 내 팔자요 못 만나도 내 팔자지
 백년해로도 내 팔자요 십칠 세 청상도 내 팔자요
 팔자가 좋을 양이면 십칠 세에 청상될까
신명 도망* 못할지라 이내 말을 들어 보소
 나도 분디 순흥 읍내 임 이방의 딸일러니

우리 부모 사랑하사 어리장고리장 키우다가
 열여섯에 시집가니 예천 읍내 그중 큰 집에
 치행 차려 들어가니 장 이방의 집일러라
 서방님을 잠깐 보니 준수비범 풍후하고
 시부모님께 현알하니 사랑한 맘 거룩하데
 그 이듬해 처가 오니 때마침 단오리라
 삼백 장 높은 가지 추천을 뛰다가서
 추천 줄이 떨어지며 공중에 메박으니
 그만에 박살이라 이런 일이 또 있는가

- 작자 미상, 「텐동어미 화전가」 -

* 신명 도망: 운명이나 팔자로부터 도망을 칩.

22. (가)를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전가의 내용이 여성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남성들은 창작과 향유에서 배제되었군.
- ② 화전가에서는 특정한 계절의 풍속을 배경으로 화전놀이의 여러 과정이 제시되었군.
- ③ 화전가는 화전놀이를 하기 전이나 화전놀이가 끝난 후에도 창작이 가능했군.
- ④ 화전가는 문중에 소통되어 가문의 결속을 다지는 기능을 하기도 했군.
- ⑤ 화전가는 화전놀이의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어지기도 했군.

23. (가)의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봄을 맞이한 심회를 읊음. ㉠
- 화전놀이를 행할 날을 택함. ㉡
- 화전놀이를 위한 경비를 주렴함. ㉢
- 화전놀이 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함. ㉣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4. (가)의 ㉠과 (나)의 ㉡을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과 ㉡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소재이다.
- ② ㉠과 ㉡ 모두 자연의 섭리에 대한 경의감을 느끼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에게 감흥을 주는, ㉡은 화자에게 원망을 받는 소재이다.
- ④ ㉠은 화자의 달관적 태도를, ㉡은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드러낸 소재이다.
- ⑤ ㉠은 과거에 대한 추억을 환기하고, ㉡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25. (나)의 [B] ~ [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B]: 직설적인 표현을 통해 '영결종천 이별'에 대한 화자의 괴로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C]: 대구를 활용하여 부재하는 '서방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③ [C]: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우리 낭군'과 꿈속에서라도 만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④ [D]: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전놀음'에 함께 참여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연민의 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D]: '천하 만물'과 자신의 처지를 대비하여 화자의 외로운 신세를 토로하고 있다.

26. (가)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부인들이 '내척 편을 외'고 '칠월 편을 노래하'는 풍월 놀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화전놀이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청춘과녀'가 '한 부인'과 대화를 나누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여성들의 한스러운 심정이 담겨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텐동어미'가 '이내 말을 들어 보소'라는 말을 한 후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서 내부 이야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텐동어미'가 '신명 도망 못할지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 이야기에 나오는 경험에서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바꾸려는 의지를 이끌어 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화전놀음이 좋다'며 '심회를 조금 풀까'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 이야기에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던 당대 부녀자들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국평일 배포 자료 EBS 고전시가

by 교육청 · 평가원

정답

- 고1, 2013.03 「오우가」 35. ⑤ 36. ⑤
 고1, 2013.06 「님이 오마 하거늘~」 22. ④ 23. ③
 고1, 2014.03 「가시리」, 「어이 못 어던가」 19. ④ 20. ④ 21. ③
 고1, 2014.06 「어부단가」 38. ② 39. ⑤
 고1, 2014.09 「오우가」 37. ④ 38. ③ 39. ②
 고1, 2015.03 「잠노래」 35. ④ 36. ③ 37. ④
 고1, 2015.09 「제망매가」 34. ⑤ 35. ⑤
 고1, 2015.11 「강호사시가」 35. ① 36. ② 37. ② 38. ①
 고1, 2017.06 「꿈에 다니는 길아~」 43. ② 44. ⑤ 45. ②
 고1, 2018.06 「누항사」 42. ⑤ 43. ③ 44. ④ 45. ②
 고1, 2018.11 「남은 다 자는 밤에~」 29. ① 30. ② 31. ③ 32. ④
- 고2, 2013.03 「님이 오마 하거늘~」 37. ① 38. ④ 39. ①
 고2, 2013.09 「상춘곡」 34. ① 35. ⑤ 36. ⑤
 고2, 2013.11 「강호사시가」 35. ④ 36. ⑤ 37. ⑤
 고2, 2014.09 「꿈에~, 「나무도~」 37. ② 38. ④ 39. ③
 고2, 2016.11 「사제곡」 34. ② 35. ① 36. ① 37. ③
 고2, 2017.11 「상춘곡」 30. ④ 31. ④ 32. ① 33. ⑤
- 고3, 2014.10 B형 「어부단가」 43. ③ 44. ⑤ 45. ④
 고3, 2015.03 B형 「상춘곡」 34. ⑤ 35. ④ 36. ④ 37. ④
 고3, 2015.04 B형 「만연사」 31. ⑤ 32. ④ 33. ④ 34. ③
 고3, 2016.07 「누항사」 37. ⑤ 38. ⑤ 39. ⑤
 고3, 2017.07 「만연사」 43. ① 44. ⑤ 45. ①
 고3, 2017.10 「텐둥어미화전가」 22. ① 23.① 24. ③ 25. ④ 26. ④